

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KOSPI 5,700 ~ 5,800 선 회복/안착 여부가 관건



[투자전략팀]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과도한 투자심리 위축 & 디레버리징 매도 간 악순환 고리의 정점 통과 중

- 7월 KOSPI 급락의 배경에는 6월 고점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반작용이 자리. 반도체 관련 악재가 업종 급락을 넘어 KOSPI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과 매도 압력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 현재 KOSPI는 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에서 언급된 자기강화 현상이 지배. 지수 하락을 설명할 악재가 발굴되고, 해당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 형성. 다만 최근 악재를 살펴보면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됐었다고 판단
- 메타가 AI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는 밝히며 AI 투자 둔화 우려가 유입. 다만 실적 발표에서 내부 AI 모델과 알고리즘 고도화를 우선하겠다고 설명했고, 27년에도 CapEx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 AI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견고함을 확인
- CXMT의 생산능력 확대가 장기적으로 메모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으나, 현재 메모리 병목을 단기간에 해소할 만큼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은 제한적. 중국이 자체 개발한 Immersion DUV 장비도 ASML의 기술적 우위를 뒤집기 어렵고, 시장점유율 역시 제한적인 수준. 핵심 부품도 일본산에 의존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중국 내 메모리 양산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
- 한편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3.50~3.75%로 5회 연속 동결했으며, 3명의 위원이 25bp 인상 의견을 제시. 동결 결정 자체는 예상에 부합했지만, 세 명의 인상 소수의 견이 확인되면서 시장은 회의를 매파적으로 해석. 다만 위시 의장이 높은 수준의 미국 국채금리 자체가 긴축적인 금융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만큼, 실제 기준금리 인상의 절박성은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낮다고 볼 수 있음
- 오히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지속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국제 유가와 미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며 증시의 실질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자극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이어지며 증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
- 결과적으로 KOSPI는 밸류에이션, 기술적 측면에서 과도한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최근까지 선행 EPS, 26년, 27년 이익 전망 상향 조정 중이고, 경기선행지수 또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 최근 악재가 아직까지는 실적, 경기 방향성에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 그 결과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4.74배에 불과. 이는 2000년 이후 최저치로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 현재 KOSPI는 악재성 이슈에 과민한 반응을 보인 공포심리와 수급 악화, 디레버리징 매도가 진행 중인 최악의 국면을 통과 중
- 핵심 분기점은 5,700~5,800선. 200일 이동평균선과 2025년 4월 저점에서 2026년 6월 고점까지 상승 폭의 50% 되돌림 구간, 12개월 선행 PER 5배와 선행 PBR 1.2배(26년 평균의 -2표준편차 & 25년 이후 평균) 수준이 해당 지수대에 집중
- 7월 30일까지 KOSPI가 해당 지수대를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5,000선의 지지력을 시험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KOSPI 5,700~5,800선에 안착할 경우 7월말 급락 국면은 Fake, 속임형 패턴으로 빠르게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1차적으로 선행 PER 7배 수준인 8,200선, 이후에는 8배 수준인 9,300선까지 회복 가능성 충분
- 향후 반등의 핵심 변수는 7월 말~8월 초 예정된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통해 CapEx 확대 기조가 재확인되고, AI 투자 둔화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 AI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된다면 강력한 시장 반전의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
- 이번 FOMC를 통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진정될 여지는 확인된 상황.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협상 및 평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가, 채권금리의 순차적인 안정이 가시화되면서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완화될 전망
- 그 동안 KOSPI 하방압력 확대, 급락의 트리거였던 AI, 반도체 업황/실적 우려와 유가, 물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KOSPI는 반등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장**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p)	등락율(%)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5,594	-1.2	-21.2	-34.0	-15.2	7.1	71.9	32.7
에너지	6,370	0.2	-23.2	-24.0	-17.9	13.7	48.3	33.7
화학	3,578	3.3	-14.8	-19.2	-42.2	-26.0	-12.8	-20.0
비철,목재	4,945	0.9	-10.4	-13.0	-40.9	-48.3	-15.4	-30.1
철강	2,051	3.8	-7.4	-5.9	-36.4	-15.9	-9.8	-5.5
건설,건축	1,799	0.3	-19.1	-20.3	-42.0	-0.8	18.0	18.3
기계	8,275	-3.5	-26.9	-35.1	-50.6	-23.5	11.2	-7.7
조선	7,359	5.5	-11.3	-13.2	-36.0	-26.1	-3.4	-15.6
상사,자본재	4,760	2.8	-16.5	-23.3	-18.5	1.3	69.3	37.1
운송	1,754	0.8	-3.0	1.1	-6.8	-5.7	-2.7	-0.5
자동차	12,907	0.0	-17.1	-18.9	-22.3	-20.7	32.0	8.9
화장품,의류	5,599	0.8	-1.9	1.8	-9.3	4.3	5.3	14.2
호텔,레저	1,526	0.6	-2.3	-9.0	-28.6	-33.2	-30.3	-34.0
미디어,교육	471	-1.3	-14.0	-8.0	-29.1	-45.3	-29.9	-40.2
소매(유통)	2,450	-3.7	-13.6	-27.3	-14.7	7.8	28.1	21.5
필수소비재	7,578	1.6	4.0	8.1	-3.7	7.6	9.9	11.2
건강관리	9,230	3.5	4.8	2.7	-9.2	-17.8	2.2	-12.8
은행	3,305	3.1	-3.0	6.0	-1.4	14.9	33.0	23.5
증권	2,501	1.4	-13.0	-14.3	-29.2	-16.7	21.3	11.4
보험	14,338	2.5	-10.6	-16.0	12.2	27.7	55.8	38.0
소프트웨어	5,996	-0.1	-7.3	-3.3	-12.0	-24.0	-15.5	-16.3
IT하드웨어	2,763	-12.7	-38.1	-58.0	-15.0	85.8	205.9	101.7
반도체	38,131	-3.1	-27.3	-44.4	-3.4	34.6	247.9	83.5
IT가전	2,224	0.7	-19.0	-24.4	-35.3	-2.8	34.8	20.1
디스플레이	506	-0.4	-18.5	-25.6	-33.0	-28.9	-22.9	-28.2
통신서비스	437	0.2	-10.9	-4.5	-13.9	0.0	14.9	18.9
유틸리티	1,030	0.3	-7.6	-9.4	-29.1	-37.7	-15.7	-24.1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8.9	16.2	17.1	3.5	3.1	3.3	18.7	19.4	19.2	0.8	2.9	
선진국	20.5	17.8	18.7	3.9	3.5	3.6	18.8	19.4	19.2	0.9	2.4	▲
신흥국	11.9	9.6	10.4	2.2	1.9	2.0	18.5	19.6	19.2	0.5	5.2	
북미	22.4	19.1	20.0	5.0	4.4	4.6	22.5	22.9	22.9	0.8	2.8	
유럽	15.8	14.3	14.9	2.4	2.2	2.3	15.2	15.6	15.5	-0.1	1.5	
퍼시픽	17.5	15.7	16.7	2.0	1.8	1.9	11.1	11.6	11.4	-0.3	0.6	
라틴	9.9	9.4	9.6	2.0	1.8	1.9	19.8	18.9	19.3	-0.4	0.6	
EM 유럽	10.9	9.3	9.9	1.5	1.4	1.5	14.1	14.6	14.6	-0.4	0.1	
EM 아시아	12.2	9.6	10.6	2.3	1.9	2.1	18.7	20.2	19.6	0.7	6.6	
선진 시장												
S&P 500	22.3	19.0	19.9	5.1	4.4	4.7	23.0	23.4	23.5	0.9	3.0	
NASDAQ	28.4	21.9	23.4	6.8	5.6	5.9	24.1	25.4	25.2	0.7	3.5	
프랑스	15.2	14.0	14.5	2.0	1.9	1.9	13.2	13.5	13.4	0.1	0.4	
독일	15.7	13.5	14.2	1.8	1.7	1.7	11.5	12.5	12.2	0.2	1.4	
영국	13.0	12.1	12.5	2.2	2.1	2.2	17.2	17.3	17.2	-0.2	-0.7	▽
일본	17.2	15.2	16.4	1.9	1.8	1.8	11.0	11.5	11.2	0.2	1.9	
신흥 시장												
중국	11.7	10.2	10.8	1.3	1.2	1.3	11.4	12.0	11.7	0.2	1.1	
인도	21.9	18.5	20.6	3.1	2.7	2.9	14.0	14.8	14.3	-0.3	0.0	
한국	6.6	4.8	5.4	2.1	1.5	1.7	31.3	31.6	31.5	0.1	6.9	
대만	23.0	17.8	19.7	5.3	4.3	4.7	22.9	24.3	23.8	1.5	8.4	
브라질	8.4	8.1	8.2	1.7	1.6	1.6	20.6	19.3	19.8	-0.4	-1.3	

기준일: 2026.07.29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7.1			○			●				
선진국	18.7				○		●				
신흥국	10.4	○ ●									
북미	20.0		○				●				
유럽	14.9							○ ●			
퍼시픽	16.7							○	●		
라틴	9.6						○	●			
EM 유럽	9.9									○	●
EM 아시아	10.6	○ ●									
S&P 500	19.9		○			●					
NASDAQ	23.4		○	●							
프랑스	14.5						○ ●				
독일	14.2						○	●			
영국	12.5						○	●			
일본	16.4							○	●		
중국	10.8					○	●				
인도	20.6			○	●						
한국	5.4	○ ●									
대만	19.7								○	●	
브라질	8.2					○		●			

기준일: 2026.07.29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29.7	16.9	12.8	14.9
	선진국	23.6	15.3	13.3	14.3
	신흥국	65.3	24.0	10.9	17.5
권역(소)	북미	26.8	17.2	14.5	15.8
	유럽	17.9	10.6	10.7	10.7
	퍼시픽	14.4	11.4	9.6	10.5
	라틴	28.4	4.6	7.4	6.0
	EM 유럽	23.1	17.2	12.1	14.6
	EM 아시아	79.4	27.6	11.5	19.5
선진국	S&P 500	27.7	17.7	14.7	16.2
	NASDAQ	47.7	29.8	21.6	25.7
	프랑스	20.5	9.1	9.4	9.3
	독일	8.2	16.0	14.0	15.0
	영국	18.5	7.6	8.0	7.8
	일본	15.3	13.3	11.2	12.3
신흥국	중국	13.3	14.9	13.1	14.0
	인도	10.3	18.1	13.6	15.9
	한국	312.7	37.3	4.8	21.1
	유럽	17.9	10.6	10.7	10.7
	브라질	36.7	3.3	8.0	5.7

기준일: 2026.07.29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